금주의 법구-〈장아함경〉
만족할 줄 알고
게으르지 말며
궁핍할 때를 준비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2월 2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2호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신행혁신 · 전법강화 불자 감소 '정면돌파'

조계종 포교원, 17일 신년계획안 공개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발표 결과 불교신자 300만 명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조계종이 불교 포교 · 신행의 일대 변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포교와 포교연구, 신도종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재편과 함께 신년계획을 공개했다.

신행 혁신과 불자상 정립 박차

포교원이 주안점으로 둔 올해 핵심 종책은 신행혁신운동과 불자상 정립이다. 포교원은 가장 먼저 3월 중 신행혁신을 의제로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대중공사를 연다. 신행혁신운동 거점사찰도 현재 조계사와 봉은사 등 이미 지정된 전국 주요사찰 127곳에 추가로 사찰 30곳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주 포교원 전법팀장은 "지난해 127곳에 대한 지정을 완료했지만 인구대비 지정되지 않은 사찰이 있어 선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신행혁신운동 거점사찰 확대와 함께 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은 신행혁신운동 확산을 위한 매뉴얼과 '붓다로 살자' 소책자를 비롯해 신행혁신 레터 발간 등을 진행해 일선 사찰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행아카데미'의 시범 운영과 수행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포교원은 이를 위해 선원수좌회 측과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이다. 또 불자 신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포교원은 불교사회연구소와 함께 3월부터 9월까지 신행현황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도 교육 및 조직 활성화

신도 기본교육 강화를 위해 포교원은 현재 137곳인 신도 기본교육기관도 200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매년 기본교육기관 40곳을 인가할 방침이다. 지역별 · 인구별 거점 교육기관도 1곳 이상을 설립한다.

김상기 포교차장은 "교구별 수말사 1~2곳씩을 섭외 중에 있다. 신도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도종책위원 성행 스님은 "기본교육 이수 후 불교대학의 심화교육까지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기초불교대학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도조직도 확대돼 정부부처마다 공무원 불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산하 불자회는 170여개로 총 1만여 공무원이 소속된 상태다. 포교원은 공불련과 함께 정부기관 불자회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미래세대 전법 본격 추진

불교 미래를 위해 저연령층에 대한 포교도 추진된다. 이는 현재 불교의 세대간 인구 분포가 매우 기형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월 신행혁신 대중공사 개최
거점 사찰 150곳으로 확대해
수좌회와 수행프로그램 개발
모든 정부부처에 불자회 설립

가장 먼저 현재 522곳인 파라미타 학교분회에 50곳이 신설 추진된다. 현재 포교원은 120여개 어린이청소년 전법도량을 활용해 인근 학교에 파라미타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에 나선 상황이다. 기존 청소년 마음등불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 17곳도 확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포교 계층 개발을 위한 전법단도 강화된다. 우선 2월 어르신전법단, 새터민전법단이 출범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포교단체서 활동하는 지도법사 스님도 30명 이상 증원해 포교단체 지도법사를 총 670명 선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불교혁신에 한국불교의 명운이 달려있다. 포교원은 신행혁신을 통해 새로운 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회의에서는 포교위원장 심산 스님, 신도종책위원장 지현 스님, 포교연구위원장 혜거 스님 등 각 위원회 위원이 위촉됐으며 총 27억 411만원의 예산도 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까만 손이 전한 따뜻한 연탄나눔

태고종 사부대중의 얼굴이 정말 해맑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연탄 속에는 받는 이와 주는 이 모두 행복해지는 불법이 녹아 있나보다. 설 연휴를 앞둔 1월 17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태고종 스님들의 연탄나눔 후 자원봉사자들과 스님들이 연탄가루가 검게 묻은 장갑을 펼쳐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자비행에 나선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조계종 협의대상 아냐"

문화재청 황당한 답변… 조계종 "핵심 벗어난 물타기"비판

조계종과 사찰과의 협의와 통보 없이 진행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 대해 문화재청이 "조계종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본지와의 서면질의를 통해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17일 보내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됐음을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연구 용역에서 조계종과 해당 사찰에 대한 사전 고지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등산객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불만 민원이 특정 사찰에 집중됨에 따라 기초 실태조사 및 연구 · 검토를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면서 "조계종과 직접 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은 공개입찰 당시 자세하게 '과업지시서'에 용역 대상 내용이 포함됐다. 제안서 내용을 외부위원이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는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 단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연구용역 참여자도 도시공학, 미디어영상, 농학 등 해당 연구 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애초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도 있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종법 개선'에 대한 과업지시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공개 및 직접 관람에 따른 관람료 징수 취지"라면서 "조계종 내부 종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징수 근거로 제시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과의 상충 관계 및 타당성 등을 비교 · 분석해 문화재보호법 개선 필요성 여부를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식 답변"이라고 성토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종단의 문제 제기 처음에는 몇몇 사찰 종무실장과 논의했다고 답하더니 불교계 언론들 취재가 이어지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불통 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는 13일까지 요구한 답변 공문에 대한 회신도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직접 관람에 따른 것'이라는 문화재청의 인식 역시 '점' 단위 문화재 관리에서 '면'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제2의 창간 정신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신임 사장 취임



박종수 前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사진〉이 현대불교신문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현대불교신문사 이사회는 회의를 통해 1월 2일 자로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을 임명했다.

박 신임 사장은 "현대불교신문사의 사시는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다.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창간 정신을 앞세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홍포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불자들에게 필요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욕구를 반영한 기사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급변하는 언론 지형에 맞춰 SNS, 동영상 등 뉴미디어로의 매체 영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신임 사장은 충북원예농협 전무를 지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으로 불교 신행 발전에 일임을 담당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 령

명) 관리국 국장 서 춘 건

광고국 국장 김 학 표
국장 이 동 격

편집국 국장 김 주 일
부장 신 성 민
차장 노 덕 현

2017년 1월 16일 부

즐거운 설연휴 보내세요

다음호는 연휴관계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